

내 돈이 쓰이는 방향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았다. 이 책은 이렇게 읽힌다. 아니 주인공 보스는 이렇게도 말한다.

나는 단순히 근로소득을 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돋고 있다고 했다.

이 책은 돈이 아닌, 우리 삶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다시 쓰여야 한다.

그래서 내가 부제목을 붙이기로 한다.

“주무관의 일과 월급, 그리고 행정서비스” 또는 “따뜻한 돈, 세금”

나는 도넛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조세 안정 및 조세 형평을 위한, 나라의 치안을 위해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내가 손이 되어 걷는 세금은 복지, 보조금, 공공시설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쓰일 것이다.

그렇게 재분배의 봄비처럼 뿌려질 것이다.

차갑고 시리던 세금이 따뜻한 감촉의 세금으로 다가온다.

나는 또한 돋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쉽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돈을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하며 나는 매달 같은 시기에 같은 근로소득을 받는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다.

나의 직업은 모두가 행복한 도넛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난 그 하나 하나의 도넛을 가득 넣은 도넛박스를 받기 위해 오늘도 택배를 기다린다.